

“원전 위험 떠안은 지자체에 가동 중지권·폐쇄권 줘야”

민주당, 원자력 시설 정보요구권·조사권 등 법안 추진

원자력발전소(원전)를 비롯한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조사권 등 감시권한을 비롯해 시설의 가동 중지권과 폐쇄권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원전 가동에 따른 위험은 지방이 지고 있는데 왜 모든 규제는 수도권으로 대표되는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원전 안전을 좌우하는지 지적하며,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공론화해 나서면서 등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원자

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지역민과 지자체가 스스로 안전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법안 입법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원전 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비(非)수도권이 차지하는데, 원전 관련 주요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는가 하면 원전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권, 조사권, 감시권 등 주요 권한이 수도권에 위치한 중앙정부 기관에 집중됐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원전 소재 지자체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원자력발전소 등에서는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거절하고, 지자체가 규제 권한을 갖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보여왔다. 원전 등 원자력 관련 시설이 소재한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에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에 나선 이 의원은 원안위가 지자체에 ▲자료 제출 등 정보요구권 ▲현장 조사권 및 감시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을 방침을 밝혔다. 원전 뿐 아니라, 연구용 원자로와 핵폐기물 저장시설 소재 지자체에 중앙정부(원안위 등)가 가진 권한 일부를 이양하거나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권한을 함께 보유하는 것도 법안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보다 더 진전된, 유사시 원자력 관련

시설의 가동 중지, 폐쇄까지 할 수 있는 권한도 지역 정부에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의원은 “원안위에서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굳이 지자체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원안위는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한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안전 관련 정당한 요구까지 거부하거나 방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역주민 생명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가동 중지권, 폐쇄권도 갖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관련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국회 통과는 목표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를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 국회의원, 지역민 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한빛원전 6호기 보조건물 내벽 결함 발견

속 비어있는 구멍 2곳 나와

영광 한빛원전 6호기 보조건물 내벽에서 콘크리트 공극(속이 비어 있는 구멍)이 2곳 발견됐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30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모든 원전 구조물에 대해 안전성 특별점검을 실시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는 보조건물 내 주증격리밸브실(Main Steam Isolation Valve Room)과 주증격리실(Main Steam Enclosure Room)에서 육안검사와 레

이더탐상검사 등을 거쳐 결함 의심 부위를 처음 발견했으며, 해당 부위를 잔공(drilling)한 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콘크리트 공극을 최종 확인했다.

결함이 발견된 보조건물은 원자력 격납건물 외부의 콘크리트 건물로, 원자로 냉각계통의 운전을 지원하는 설비들이 배치된 곳이다. 공극 발생 부위의 벽 두께는 180cm다.

현재 원안위는 발견된 공극들에 대해서는 구조적 건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적절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수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imhy@

수확기 산지 쌀 값 15년 만에 오름세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 이후 하락세를 타던 산지 쌀값이 4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에 이어 수확기 가격하락 시점임에도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니(80kg) 15만1164원으로, 직전 조사였던 지난 15일 15만984원보다 180원(0.12%)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12만9628원)보다는 16.6% 증가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 9월 25일 13만3348원에서 이달 5일 15만 원대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확기가 시작되는 10월 산지 쌀값이 오르는 것은 2002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처럼 산지 쌀값이 상승한 것은 올해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벼 재배면적은 전국 기준 77만734ha에서 올해 75만4785ha로 2만3949ha(3.1%)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2017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도 지난해 419만7000t에서 비해 5.8% 감소한 395만5000t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예년보다 일찍 발표된 정부의 쌀 값 대책도 가격회복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을 매입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도 시장과 농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위기다.

보통 산지 쌀값의 경우 수확철 쌀값이 시장에 나오는 10월이면 미리 소진하지 못해 남아 있는 지난해 쌀(구곡)과 맞물리는



국내 수확기 산지 쌀값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올랐다. 사진은 30일 광주 남구 대촌RPC에서 수확한 나락을 실은 트럭들이 수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80kg 15만1164원... 전년비 16.6% 올라
재배 면적 줄고 생산량 감소...정부 정책 한 몫

데다, 풍년이면 오히려 값이 떨어지는 등 ‘풍년의 역설’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수확철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역 농가에서도 추가 쌀값 상승까지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광주의 지역농협 관계자는 “위나 하락세를 면치 못한 수확기 쌀값이 모처럼 회복돼 농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수매를 진행 중이지만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해 아직 쌀을 내놓지 않고 가격 추이를 지켜보는 농가들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여수 앞바다에 ‘축구장 10배’ 등대성능검증 시험장

여수 앞바다에 축구장 10배 크기에 달하는 등대 성능 검증 시험장이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의 신호등인 등대 시설의 품질 확보를 위해 여수시 화양면에 ‘등대 성능 검증 시험장’을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총 5372개의 등대 관련 시설이 있으나, 관련 장비를 다루는 업체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해 장비개발 및 성능개선 등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지

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항로표지 장비 및 시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 시험장을 구축해 업계 부담을 덜고 제품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항로표지 기술협회와 함께 여수시 화양면 소재 남해부표관리소(협회 소속)에 등대 성능 검증 시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순천만 갯벌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절차 시작

순천만 갯벌(사진), 제주시 동백동산, 아울러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기준을 유지하도록 습지보전이용시설과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국가 지원 인증 절차가 시작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31일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국제 인증을 신청한다고 30일 밝혔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에서 정하는 람사르 습지도시는 ▲습지 인근에 있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활동하는 곳이다. 람사르 협약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에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해 현재 22개소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시범지역 8곳(내륙습지 5곳·연안 습지 3곳)을 선정하고 시범사업,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이들 지역이 협약 인증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최종 후보지 4곳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국제사회가 인증하는 ‘람사르’ 브랜드를 6년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기준을 유지하도록 습지보전이용시설과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국가 지원 인증 절차가 시작된다.

4곳의 습지는 올해 말까지 람사르협약 사무국의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제54차 상임위원회에 보고된다. 이후 10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부동산 투자!

- 법적보장(소유권/근저당 등)
- 연 30% 이상 순수익 가능
- 경매노하우 10년

문의 H.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샵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당 010-8813-477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관선 · 전원주택지

- 장성 북하면 장성호 백암사 인근 2803㎡ 환경중음 1억3천
- 화순 동북면 가수리 2175㎡ 은행 2300 요양주택 절 4800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안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하면 백암호케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 · 원룸 · 아파트

- 월산동 신기주택 임대 2호, 가실, 기계10평 2천만원에 68만원
- 월산동 농성초교부근 대지 126㎡ 주택 130㎡ 수리해이할 1억5천
- 서동 제일파크 7층 105㎡ 임대도 가능 매도 1억1500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만20만원 4억
- 화순읍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여평도 사용 북측주택 60여 평 판백나무 준공 갤러리·커피숍·식당 적합 3억8천

투자 · 매도 · 교환

- 양계장 허가부지 정총음 15000㎡ 축사허가도 있음 6억9천
- 남구 임암동 상업지 주차장부지 890㎡ 투자에 양호 34억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담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상가건물

- 영암군 삼호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사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230만원씩
- 진북 고창 대신면 아파트상가 1·2층 252㎡ 은행 1억 매도 5천만원
- 북구 용봉동 아파트단지 입구 땅 1026㎡ 상가 1538㎡ 49억
- 계림동 상업지 대지 106㎡ 복층건물 122㎡ 식당·카페적합 1억6600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물 997㎡ 병원·사육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릉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 매

- 북구 본촌동 공장·창고 적합 1300여평 분할가능 19억5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물 971㎡ 27실 6억7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급 매”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